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5호 【루계 제25844호】 주체106(2017)년 12월 1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로씨야의 주요정당들과 인사들이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총리사회, 로씨야자유민주당 최고리사회, 정당 정의의 로씨야 중앙리사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또한 바체슬라브 월로진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겐나지 쥬가노브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선물들을 11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에게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국가회의 정당련합대표단 성원들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사회주의10월혁명 100돐 기념메달과 증서를 수여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100돐 기념메달과 증서를 수여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기념메달과 증서를 11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에게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국가회의 정당련합대표단 단장인 까즈베크 따이싸에브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네트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를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1월 15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 총사장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녀성존중, 녀성중시정치로 조선녀성들이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회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하바롭스크시민들은 절세위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의 전문을 민주풍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11월 21일 인터네트 홈페지에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량강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량강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갑산군 송암리, 삼수군 판정리, 운흥군 동로리에 모셔졌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불타는 일념안고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을 다 바치였다.

김형권군 풍산고급중학교에 모신 모자이크벽화 《풍산중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길이 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2(1963)년 8월 풍산중학교(당시)를 찾으시여 교육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대홍광산에 모셔졌다.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광강땅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삼수광산에 모신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조국》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모자이크벽화를 도안의 여러 단위에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동지회고 베네수엘라전국위원회가 11월 17일에 결성되였다.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 펠릭스 헤쑤스 벨라스께스 까스띠료,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 오마르 로뻬스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회고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조국당, 공산당, 베네수엘라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를 비롯한 여러 정당, 단체, 기관의 대표들을 망라하고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회고 기네위원회 결성식이 11월 20일 꼬나크리에서 진행되였다.

기네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기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야드 살루브와 서기장 아브돌라이에 티알로가 각각 선출되였다.

위원장은 김정일각하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령도의 거장이신 절세위인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혁명직당으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건설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우리는 기네인민들속에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할것이다.

결성식에서는 12월 17일에 즈음하여 진행할 행사계획들이 토의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 영국위원회가 11월 20일 런던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이 선출되였다.

* *

김정일각하서거 6돐 스리랑카 회고위원회가 11월 21일 콜롬보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스리랑카 서부주리사회 청년사업담당비서인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라디프 위제라트나세카라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의 핵강국건설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위대한 승리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실현소식에 온 나라가 끓는다

병진의 기치 더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고 가장 정당한 당의 병진로선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며 점령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실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으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병진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반미대결전에서 기어이 최후의 승리를 이룩해나갈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돌이켜보면 병진의 길은 미제의 횡포무도한 핵위협공갈과 제재압박속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적핵무력을 건설해야 하는 험난한 초행길이였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병진의 길에서 추호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국가핵무력건설의 목표들을 빛나게 점령하여왔다.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성공이라는 승전로성이 울린지 몇달도 안되여 또다시 우리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에서 단번성공이라는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왔다.

거대한 력사적사변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뼈에 새기군 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허리띠를 조여매면서도 병진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것이 천만번 옳았다는 확신이며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철석의 신념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백년숙적 미제와 총대로 결산할 의지안고 반미성전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앙양된 보복의지를 천백배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겠다.

우리 당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도높게 벌려나가겠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질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핵무력강화의 생는길을 앞장에서 헤치시여 국가핵무력완성의 거대한 성공탑을 쌓아올리시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무후무한 핵무력건설업적을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보다 큰 위훈을 창조하도록 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자강도당위원회 위원장
김 재 룡

황금벌의 력사를 빛내여나가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해도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것이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의 실현!

진정 천신만고를 다하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시여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떨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굽이 젖어든다.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오로지 당을 따라 병진의 한길로 달음쳐온 승리자의 보람과 긍지, 자부심과 희열로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오른다.

세계최강의 국가핵무력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불패의 일심단결과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가 있기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그 어떤 형태의 제재봉쇄를 가해온다 해도 우리를 절대로 놀래울수 없다.

오늘의 대승리, 민족사적경사는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을 지켜선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자각과 열정을 백배해주고있다.

우리에게 이제 쌀만 많으면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문제없다.

바로 그래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으로 정해주시고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사회주의전야를 믿음직하게 지키고 가무도록 해주신것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다음해 알곡생산에서 승전포성을 더 높이 울리기 위해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철의 의지와 담대한 배짱,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이 우리 모두의 심장을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로 펄펄 끓게 하고 령도자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그 어떤 요새도 단숨에 점령해나가는 국방과학전사들의 견인불발의 투쟁기풍이 우리를 련속공격, 계속전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과학농사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쌀이 넘쳐나는 나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국의 땀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감으로써 황금벌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나가겠다.

세계는 머지않아 주체의 핵강국으로만이 아니라 경제강국으로도 우뚝 솟구쳐 눈부시게 빛을 뿌릴 강대한 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우러러보게 될것이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고 인 호

오늘의 특대사변을 주체철생산성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사회주의위업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춘 국가건설을 통해서만 승리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른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소식에 접했을 때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가 없었다.

다계단으로 번이 나는 위대한 조국번영의 시대에 세인을 놀래우는 가슴벅찬 승리적화폭을 펼친 이 특대사변이야말로 조선의 결심은 과학이고 승리도 과학이라는 진리를 온 세계에 알린 승전포성이며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한 력사적페거이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또 하나의 신형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한것은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영웅적인 우리 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이다.

오늘의 특대사변을 계기로 우리가 더욱 뼈에 새기게 되는것은 허리띠를 조이면서 병진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것이 천만번 옳았다는 확신,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우리식으로 끝까지 지켜냈다는 철의 진리이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휘황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지금 공화국정부성명에 접한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기세는 하늘에 닿았다. 나라의 강철전선을 지켜선 우리는 철강재생산성과로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겠다.

기쁨과 환희, 준엄한 시련이 엇갈리며 흘러온 나날들에 자립의 무쇠기둥을 억척같이 세워온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철강재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할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일터마다에서 산소열법용광로를 비롯한 주체적인 철생산공정들을 만가동시켜 적들의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리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우리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비상한 각오와 실천력을 지니고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진격의 기수, 화선의 기관차가 되겠다.

주체철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이 실현된 오늘의 특대사변, 장쾌한 포성에 철강재생산성과로 화답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기사장
김 영 철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성공소식에 접하고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전력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다는 통쾌한 소식, 미제의 최후멸망을 선언하는 민족의 대경사에 접하고 보니 심장이 세차게 높뛰고 승리의 신심이 더욱더 백배해진다.

얼마나 가슴후련한 민족사적쾌거인가.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듯 멘접하여 기절초풍하는 트럼프놈과 그 졸개들의 가련한 몰골이 눈에 막 선하다.

이제는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타격권안에 확고히 들어와있으며 미국놈들이 음쩍만 하면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들이 불소나기마냥 쏟아져 미국이라는 저주로운 악의 제국을 재가루만 날리는 페허로 만들어버리고말것이다.

온 나라에 민족사적대경사를 경축하는 만세의 함성이 울려퍼지는 지금 우리 발전소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우리 조국의 영원한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여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이룩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문제를 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입니다.》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받들고 짧은 기간에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시험발사를 단번성공시킨 국방공업부문 과학자, 로동계급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과 절사관철의 투쟁기풍은 우리 전력생산자들을 새로운 기적창조에로 부르고있다.

우리는 전력이자 생산이고 전력증산이자 생산장성이라는것을 언제나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력증산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가겠다. 또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발전기들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겠다.

그리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겠다는것을 결의한다.

순천화력발전소 지배인
석 두 홍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김 정 은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영원하리

우리는 이 글을 6년전 12월의 그날에 있었던 눈물겨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붕—

기적소리를 무겁게 울리며 렬차는 떠나기 저어하는듯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렬차가 북부지구에로의 길에 오르고있는것이였다.

《장군님, 이 길만은 절대로 떠나시면 안됩니다.》

《지금상태로는 못 떠나십니다. 제발…》

렬차가 떠나기 전 일군들은 이렇게 애원하며 무작정 그이의 앞길을 막아섰다.

12월에 들어서면서 의사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이달 25일까지는 특별히 건강에 주의하셔야 한다고 간절히 말씀올렸다는것을 너무도 잘 아는 그들이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떠나시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였고 일군들이 아무리 애원하여도 멈춰세울수 없었던 길이였다.

붕—

렬차의 기적소리는 언제나 울리던 변함이 없는 그 소리였다.

그러나 사람들이여, 우리 정녕 알았던가.

언제나 그이의 길은 사댁에 방해될세라, 어쩌다 드신 목잠에서 깨어나실세라 울리기 저어하던 기적소리가 그날에는 너무도 안타깝게, 애처롭게, 설게 울렸다는것을.

아, 기적소리여, 너는 왜 천둥소리로 하늘을 울리고 지동을 쳐 이 나라 천만자식들에게 알리지 못했더냐.

붕—

렬차는 울었다. 울면서 달렸다. 북쪽으로…

그날은 12월 16일이였다.

하다면 어찌하여 그날의 기적소리가 오늘도 끊없이 울려퍼지며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쾅쾅 두드려주는것인가.

6년전의 그날에만 울려퍼진 렬차의 기적소리가 아니였다.

지난 세기에 이어 새 세기에도 끊없이 울려퍼진 인민사랑의 위대한 메아리였다.

정녕 그 기적소리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일관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실록이였고 그 사랑속에 꽃피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행복의 메아리였다.

하기에 12월이 오면 소리없이 내리는 눈송이에도, 문득 스쳐지나는 바람소리에도 인민행렬차의 그 기적소리가 실려오는것만 같아 때없이 가슴이 찌릿해지는 이 나라 천만군민이다.

그렇다.

절세위인의 위대한 한평생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직접 체험한 우리는 12월의 이 언덕에서 더욱 사무치게, 더욱 강렬하게 심장에 새긴다.

그처럼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신분, 인민을 위해 그리도 불같이 사신 위대한 어버이를 우리가 모셔왔고 무한한 행복과 영광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다는것을.

어느날 어느 한순간도 사라질줄 몰랐던 사무치는 정이 산을 쌓고 바다를 이룬 이 땅에서 천만자식들이 위대한 어버이를 또다시 목메여 부르고있다.

한평생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간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였습니다.》

인민행렬차,

조용히 그 이름 불러보느라면 야전렬차를 집무실로, 숙소로 정하시고 인민을 찾아, 병사들을 찾아 쉬임없이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자욱이 숭엄히 안겨온다.

어느해인가 야전렬차에서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일군들이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정겹게 둘러보시며 이렇게 이르시였다.

이제는 렬차에서 생활하면서 강행군을 하는것이 습관된것 같습니다. 강행군으로 낮과 밤을 이어온 지난 두달동안에는 설명절을 비롯하여 명절들도 많았습니다. 명절날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즐기며 휴식하고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인민생활문제가 걱정되여 그렇게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인민생활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언제 한번 집에 들어가 발편잠을 잘것 같지 못하다고 하시며 모든 일군들은 자신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기어이 인민생활문제를 풀어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인류력사에 처음으로 궤도우를 달리는 기관차가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과연 언제 어느때 우리 장군님과 같이 렬차에서 명절날, 휴식일은 물론 탄생일까지 사업하신 령도자가 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말그대로 타오르는 불길이였다고,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선을 세계의 상상봉우에 우뚝 올려세우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되면 그때 가서 마음놓고 휴식도 하고 밀렸던 잠도 실컷 자보려고 한다시며 한생을 불길처럼 사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은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어가신 헐무철미 인민행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실 의향을 표시하시던 때의 일이 숭엄히 돌이켜진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멀고 험한 길을 걷는것을 커다란 공지로 생각한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눈굼을 적시며 그이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을 돌보셔야 한다고 간절히 아뢰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달래시듯 이제는 렬차를 타고다니며 거기에서 생활하는것이 습관이 되여 그런지 렬차에 오르면 집에 온것 같이 느껴지고 반대로 집에 들어서면 려관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였다.

이렇듯 인민을 위한 헌신과 로고를 오히려 락으로 여기시며 이 땅에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어찌 그 이야기뿐이랴.

멀리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두고온 인민들생각으로 그리움의 눈물 지으시고 어느 한 양어장에서는 자신께로 몰고기들이 모여드는 순간에조차도 인민을 생각하시며 뜨거운 진정을 터치신 이야기, 태양절의 불바다우에 황홀한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밤, 온 나라가 기쁨에 넘쳐있을 때에도 인민들에게 안겨줄 천만가지 행복에 대하여 생각하시며 가슴 불태우시던 눈물겨운 사연 …

정녕 조국땅 방방곡곡에 훌륭히 일떠선 대기념비적건축물로부터 대지에 뿌리박은 한그루의 아름드리나무에 이르기까지, 인민이 터치는 행복한 웃음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리여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넘원이 활짝 꽃펴나는 휘황찬란한 래일을 향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불같은 헌신의 강행군을 단행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바쳐가시며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시였으니 세월이 천만년 흐른들 그날의 기적소리를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사나운 비바람, 눈보라를 헤치며 낮에도 밤에도 쉬임없이 달리는 인민행렬차의 차창가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아보시던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따라 눈부시게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이 빛나게 실현된 오늘의 현실은 이 땅우에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강국의 새날이 앞당겨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더 높이 울려퍼진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안고.

글 본사기자 정 순 학
사진 본사기자 김 진 명

사무치는 그리움 끝이 없네

평양역앞에서

오늘도 평양역의 시계탑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은은한 선률이 울려퍼진다. 그 선률이 울릴 때마다 격정이 북받쳐오르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더욱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

지금도 못 견디게 어려온다. 못 잊을 12월의 그날 인민행렬차에 오르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영상이.

한생을 불같이 사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한가지라도 행복의 열매를 더 안겨주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전렬차를 타시고 먼길을 떠나실 때 메아리치던 기적소리도 그 노래의 선률속에 담겨져있는듯싶다.

피는불의 12월로부터 어느덧 6년, 시련도 많고 난관도 중중첩첩하였던 그 나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리움이였다. 기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먼길 떠나신 어버이를 기다리듯이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였다.

열화같은 그리움의 힘으로 우리는 만난을 뚫뚫이 이겨냈다.

하거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가 평양역 시계탑에서만 울려였던가.

그것은 우리의 심장속에서 매일, 매 시각 울려나온 격정의 메아리였다. 인민의 그리움, 이것이 곧 어버이장군님의 영생의 숨결이 아니겠는가.

꽃의 계절

12월은 겨울이다.

하건만 이 땅에는 꽃향기가 진동한다.

이 나라 어디서나 온갖 꽃들이 망울을 터친다.

화초온실마다, 집집마다 피어난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 눈굼이 찌릿이 젖어든다.

그 꽃들을 애지중지 가꾸어온 사람들의 정성을 어이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을 향기로운 꽃속에 영원히 모시고싶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극한 충정심은 꽃보다 더 아름답다.

12월만이 아니다. 일년 열두달이 꽃의 바다이다.

새해의 첫아침 경모의 꽃다발을 엮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갈 맹세속에 첫걸음을 떼고 온 한해를 그리움의 꽃과 더불어 충정으로 수놓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

날이 갈수록 사무치게 갈마드는 그리움속에 《꽃집》으로 불리우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도처에 꾸려진 김일성화 김정일화온실들에서 불멸의 꽃들과 더불어 갖가지 진귀한 꽃들이 날마다 망울을 터친다.

새겨보면 그 화초들은 그리움으로 불타는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듯싶다.

그래서 꽃은 계절에 맞춰 피지만 조선의 사계절은 언제나 그리움의 꽃계절, 충정의 꽃계절이다.

본사기자 최 유 일

어버이 그 사랑 못 잊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른 나라들 같으면 길가의 막돌처럼 사회의 버림을 받고있을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영예군인으로 떠받들리우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것은 주체100(2011)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우리들이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이 여러가지 수지일용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생산기지로 훌륭히 꾸려졌다고 하기에 돌아보러 왔다고 하시였다.

그날 정말 수고하였다고, 불편한 몸으로 생산과 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보수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직 자기들의 피와 땀으로 당에 기쁨을 드리겠다는 하나의 생각만을 가슴에 안고 사는 영예군인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우리는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곰곰이도 뵙고싶던 위대한 장군님을 공장에 모신것만 해도 크나큰 영광인데 우리 영예군인들에게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시니 그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실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영예군인들이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고있는 현장들에서 생산현장을 멋있게 꾸렸다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신 위대한 장군님.

하나하나의 제품을 보시면서도 거기에 깃들어있는 수고부터 헤아려주시고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던 자애로운 어버이의 영상을 천만년세월이 흐른다 해도 우리는 정녕 잊을수 없다.

피는불의 12월에 우리 공장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자꾸만 눈앞에 어려와 장군님을 애타게 부르며 목놓아 울었다.

자신께서는 그처럼 불편하신 몸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우리들에게는 앓지 말고 일을 잘하라고 그리도 뜨겁게 당부하시던 장군님의 그날의 사랑이 얼마나 크나큰것이였는가를 우리는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우리 공장을 찾으시여 나라의 보배인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으며 건강한 몸으로 자기앞에 맡겨진 일을 잘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참으로 우리 영예군인들에 대한 절세의 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에는 끝이 없다.

우리 공장일군들과 영예군인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한생을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드는 길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겠다.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지배인 강 남 익

김 영 남 동 지 가
로씨야국가회의 정당련합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11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11월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로씨야국가회의 로조친선의원단 단장인 까즈베크 따이싸예브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국가회의 정당련합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와 알렉싼드르 마예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김 영 남 동 지 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누악쇼뜨

모리따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각하

나는 모리따니독립 57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11월 28일 평 양

라말라흐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빠스각하

나는 팔레스티나인민과의 세계련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팔레스티나인민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설하고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들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는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이 강점된 팔레스티나령토에서 감행하고있는 비법적인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과 인종주의적인 탄압과 학살행위를 준렬히 규탄하며 중동문제의 정화적인 해결과 민족적자주권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11월 29일 평 양

박 봉 주 동 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주체철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박봉주동지는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강철증산으로 당을 받들어온 전세대의 진통을 이어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로동계급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이미 꾸려진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당이 제시한 주체철생산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이에 앞서 박봉주동지는 평양승강기공장과 평양건설기계공장을 돌아보면서 현대적인 건설설비들을 많이 생산하여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보내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국과수부문열성자회의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전국과수부문열성자회의가 11월 2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로 부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에 희한한 과일대풍을 안아옴으로써 우리 당 과수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의 령도따라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드높이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인민문화궁전 회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주신 만복의 씨앗을 무성한 열매로 가꾸어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나라의 과수업을 비약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최휘동지, 박태덕동지,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고인호동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창엽동지, 관계부문, 과수부문 일군들, 혁신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김정은장군찬가》주악으로 회의는 시작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국과수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서한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박봉주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서한에서 나라의 과수업을 추켜세우는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맛좋은 과일을 먹이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념원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시기 과수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과 당의 과학과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과수업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과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서한에서 과수전선이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전투장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과수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과수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과일생산을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하며 나라의 과수업발전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받아안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보고를 고인호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례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을 이룩한 과수부문의 혁신자들을 축하하고 나라의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전국과수부문열성자회의를 소집하도록 해주시고 회의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의 자랑찬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진 성스러운 력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과수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이 땅우에 과수업발전의 새 력사를 안아오신 위대한 개척자이시다.

항일의 나날 아동단원들에게 조국의 사과를 안겨주시던 그 사랑으로 전국의 초행길에 과수업발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화의 나날에도 최고사령부작전도우에 백과주렁진 사회주의락원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우리 나라를 과수의 나라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군중적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수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나라의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온 나라를 과일동산으로 전변시켜 나라의 만년재부를 마련할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지팡이를 짚으시고 과일나무도 심고 가꾸시면서 나라의 방방곡곡에 있는 과수원마다에 끝없는 헌신과 로고의 자욱을 아로새기시였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새 과일품종을 보시고도 사랑하는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였고 국가적인 중요회의에서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하루과일공급량까지 손수 계산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우리 함께 일을 잘해서 온 나라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히 먹여보자고 절절히 당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정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평생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실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과수업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주신 새 세기 과수력사의 창조자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과수업발전을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데 대하여**》,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맛좋은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새 세기 과수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주저앉았던 과수부문에 재생의 활력을 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자론을 과수업분야에 구현하여 우리 나라 기후에 맞게 우량품종들을 풍토순화시키고 키낮은사과나무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고산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세계적인 대규모과수농장들이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솟아나게 되였으며 현대적인 과수연구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져 과학과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만난시련을 극복하며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선 굴지의 과일생산기지들은 내 조국의 골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품에 안아 가꾸시며 온 나라를 과수원화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안겨주시려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며 후손만대에 물려줄 귀중한 재부이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한생이 뜨겁게 어려있는 우리의 과수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과일생산투쟁을 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과수의 기치높이 우리 나라 과수업을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들을 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를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로 꾸리도록 하시고 과수부문에 대한 통일적인 과학기술지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도 밝혀주시면서 과일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장력사의 첫 페지를 쓰시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가시여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과일증산투쟁에로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의 손길은 온 나라 청춘과원들에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수호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과일군을 몸소 찾으시여 과일농사정형을 하나하나 알아보시면서 과수업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과일을 더 많이 먹이시려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고도 전국과수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고 높은 금의 당 및 국가표창까지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정녕 우리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시다.

보고자는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의 새 력사를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였으며 비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과수의 나라로 전변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는 최근년간 과수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오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많은 단위들에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를 수많이 생산하고 키낮은사과나무밭들을 대대적으로 늘이였으며 제철과 영농시기에 따르는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해마다 많은 과일을 생산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과일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최근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과일대풍을 안아오는 승리의 길이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새겨안았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지켜준 과학과수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라의 과수업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품을 들여 마련해주신 귀중한 밑천들이 은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보고자는 모든 단위들에서 과일생산투쟁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실천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품종의 갖가지 과일나무모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과일품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과일생산을 과학화, 정보화하고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과일나무비배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수원의 지력을 높이고 관수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며 여러가지 효능높은 생물농약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낼뿐아니라 과수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과일가공과 보관을 잘해나가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맛좋은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따라앉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어디서나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과일생산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사업을 적극 따라세워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온 나라에 과일향기가 차넘치게 함으로써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과일군농업경영위원회 위원장 황철수동지, 고산과수종합농장 분장장 황광철동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초급당위원장 김근학동지, 작업반장 전기봉동지, 명간과수농장 작업반장 김경희동지, 북청군당위원회 위원장 한영식동지, 과일군 신대농장 작업반장 리대혁동지, 덕성사과농장 지배인 김송숙동지, 평양과수농장 로동자 정금란동지, 온천과수농장 지배인 임준혁동지,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길상봉동지, 수안과수농장 지배인 류영찬동지,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 소장 계룡길동지,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김승진동지, 송화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최춘국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나라의 과수업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그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안고 지난 기간 과수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맡겨진 과일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기 단위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생산자대중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과수원조성과 과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생산성이 높고 맛좋은 과일종자들을 적극 발아틀이고 우량품종들을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으며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과수원의 지력을 높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수업발전에서 과학기술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정보당 50t이상의 사과를 생산할수 있는 과학적인 재배방법을 확립하였으며 자체로 유기질복합비료와 농약을 만들어내고 과수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장, 작업반마다에서 타오르는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으며 일터와 마을이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나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강력을 발휘해나간다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과일대풍을 안아올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들에서는 당의 의도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과학과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리지 못한 결함과 교훈들도 분석총화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우리 조국을 백과주렁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는데서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회의에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고산과수종합농장, 과일군, 북청군사이의 주체106(2017)년 사회주의생산경쟁순위가 발표되고 1등을 한 과일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순회우승기와 표창장이 수여되였으며 우수한 단위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이어 과수부문 주체107(2018)년 사회주의생산경쟁요강이 발표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회의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최후승리의 총돌격전으로 들끓는 황북땅에 울려퍼진 혁명의 전진가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 예술인들 사리원시에서 첫 공연 진행

조국땅 곳곳에서 혁명의 전진가를 우렁차게 울리며 우리 인민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줄기차게 벌려온 우리 당 사상문화전선의 제일기수들이 황해북도에서 뜻깊은 첫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11월 30일 황해북도예술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위원장 량정훈동지,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임훈동지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주요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주체조선의 필승의 기상이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에 실려 장내에 굽이친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 《고백》,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철의 도시 밤하늘에 붉은 눈이 내리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미루벌의 종다리》, 《며가솔하러 갈 때》, 《황금산라팡》,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자주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기치드높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력사의 광풍을 헤갈기며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운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리는 인민의 영원무궁한 영광과 감사의 정을 담아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가 승엄히 울려퍼졌다.

관중의 심장을 격동시킨 경음악 《단숨에》,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나가자 조선아 세상에 소리치며》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눈부신 성과들이야말로 우리 당 병진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는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위대한 승리이라는것을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지자 장내에는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오르고 격정의 대하가 세차게 굽이쳤다.

황북땅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인민사랑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아로새기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설화시 《황북땅아 후손만대 전해가자!》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설화시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당의 령도따라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념원을 천실로 꽃피워 주체철 증산으로 사회주의강국의 기둥을 억척같이 떠받들고 만풍년의 승전가높이 다수확도의 영예를 떨쳐갈 불같은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천만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여 더욱더 강대해지는 조선의 힘, 무진막강한 국력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안겨준 공연은 종곡 《그이 없인 못살아》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이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배우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기적의 시대를 열고 인민의 천만소원을 꽃피워가는 우리 당을 따라 사회주의의 오직 한길로 억세게 나아갈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백백천천 공연은 관람자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김정국 황해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보급 예술단체들의 공연이여서 그 기쁨은 더욱 크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연이 보여준것처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제아무리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여도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전진을 절대로 막을수 없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도안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 《철의 도시 밤하늘에 붉은 눈이 내리네》는 황철로동계급에게 못잊을 추억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면서 김영철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기사장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노래를 들으며 전후의 그 어려웠던 시기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초고전력전기로에서 쏟아져나오는 쇠물폭포를 보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시던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사무쳐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불굴의 투사들로 자라난 우리 황철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 많은 주체철을 생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리광남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장, 리철룡 사리원탄광 굴진공을 비롯하여 공연을 본 황해북도안의 각계층 근로자들도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주체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친 기세드높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과업관철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불타는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수도의 곳곳에서 련일 진행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지닌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의 완전성공소식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기쁨의 파도로 되여 온 나라 강산에 굽이치고 천만심장이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고있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특대사변, 대경사를 맞이한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곳곳에 떨쳐나와 련일 경축의 춤바다를 펼치였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위대한 힘의 탄생과 더불어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주체강국의 공민된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아름다운 춤물결이 되여 무도회장들마다에 끊임없이 굽이쳤다.

참가자들은 국가핵무력완성의 거대한 성공탑을 쌓아올리시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인민의 나라》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병진의 기치높이 주체의 핵강국건설사에 길이 빛날 기적적승리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며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워가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이 넘치는 가운데 《당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살리》의 노래에 실려 화려한 춤무가 경축의 광장들을 뜻깊게 장식하였다.

《내 마음 별에 담아》, 《홀라리》 등의 경쾌한 노래에 맞추어 춤물동을 이어나가는 무도회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해갈 불타는 맹세가 어려있었다.

만경대구역, 보통강구역, 락랑구역, 선교구역 등 수도의 곳곳에 펼쳐진 무도회장들에 너도나도 떨쳐나온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원쑤들의 그 어떤 야만적인 초강도제재나 군사적압살도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총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는 굳은 확신에 넘쳐 어깨를 들썩이며 흥겨운 춤가락을 펼쳐나갔다.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터쳐올린 승전포성에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화답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무도회장들에 승리의 함성이 련이어 터져올라 경축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건설위업수행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친 전세대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주체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꼿꼿이 이어갈 참가자들의 신념과 의지가 《7.27행진곡》, 《전선에서 만나자》의 노래들에서 힘있게 분출되였다.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무도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기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우리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 평양대극장에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007호 주체106(2017)년 11월 25일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교육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008호 주체106(2017)년 11월 25일

평양시 대성구역에 모범체육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체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였으며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체육선수후비양성과 군중체육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 평양시 대성구역에 모범체육구역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로씨야국가회의 정당련합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1월 30일 로씨야국가회의 로조친선의원단 단장인 까즈베크 따이싸예브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국가회의 정당련합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으로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표단성원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시책과 혜택속에 넝번군 음173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백도심할머니가 백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해방전 룡천군에서 빈농의 딸로 태여난 할머니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나라잃은 민족의 설움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비로소 참된 삶을 누릴수 있게 된 그는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안고 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지켜 성실히 일해왔으며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

할머니는 늘 자손들에게 고마운 당과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우리 인민이 만복을 누리고있다고 하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당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번째 생일을 맞는 그에게 온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품갈은 영광과 행복앞에서 할머니는 온 나라 인민들을 따뜻이 보살피시며 정법한 늙은이의 생일상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온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고 감격에 넘쳐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 친척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덕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헌신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안겨준 백살장수자의 기쁨

로씨야국가회의 정당련합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로씨야국가회의 로조친선의원단 단장인 까즈베크 따이싸예브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국가회의 정당련합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만경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성지이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인민들의 혁명적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신 진정한 국제주의자이시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류원신발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로씨야국가회의 정당련합대표단 류원신발공장 참관

전국과수부문 경험발표회 진행

전국과수부문 경험발표회가 11월 2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전국과수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발표회에 참가하였다.

발표회에서는 과일군과수연구소 소장 신충국동지, 명간과수농장 지배인 차창남동지, 정원군 매전협동농장 농장원 한명식동지,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 연구사 리태남동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연구사 우평복동지, 과일군농업경영위원회 기사장 주은식동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작업반장 장명철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맛좋은 과일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과학과수의 기치높이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다그쳐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새로 육성도입한 생산성이 높고 맛이 좋은 과일품종들과 우리 나라 북부지대에서도 재배할수 있는 추위견딜성이 강한 키낮은사과나무접그루의 특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자료들을 들어가며 해설하였다.

영농공정에서 빛함성률을 최대한 높이고 많은 과일이 달릴수 있게 키낮은사과나무의 모양만들기와 가지자르기, 병해충구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정보당 사과생산량을 50t이상으로 끌어올린 과일군의 경험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자지도에 의한 과수영농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수심대의 치차전동식물짜는기계를 창안제작하여 과수업의 정보화수준과 기계화비중을 훨씬 높인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경험도 호평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이날 전국과수부문 성과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고산과수종합농장, 과일군, 북청군을 비롯한 60여개의 과일생산단위들에서 전시한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과수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도착

규슈조선중고급학교 교장 전진성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 11월 3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시안의 봉사단위들과 가정주부들의 김치경연 진행

평양시안의 봉사단위들과 가정주부들의 김치경연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력명거리의 료리촉진장에서 있었다.

시안의 봉사단위들과 녀맹조직들에서 선발된 료리사들과 가정주부들이 참가한 이번 경연은 인민봉사총국부문과 성, 중앙기관부문, 평양시사회급양부문, 가정주부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였다.

경연은 초절임과 양념소만들기 및 닭고기에 대한 가공심사와 지정된 기간안에 잘 익혀 완성한 통배추김치의 맛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평시에 련마하여온 자기들의 료리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전통적인 민족음식이며 세계적인 건강식품의 하나인 김치를 훌륭히 만들어내놓음으로써 당의 은정속에 날로 향상되는 우리 음식문화의 발전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료리사들과 가정주부들의 가공기술과 정성이 깃든 통배추김치를 비롯한 각종 김치들은 상쾌하면서도 독특한 향기, 시원하고 쨍한 맛을 내는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경연에서는 옥류관, 청류관, 경흥지도국,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만경대구역종합식당의 료리사들과 만경대구역에서 선발된 가정주부들이 각각 1등을 하였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료리사들과 가정주부들에게 메달과 증서 등이 수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바쳐진 애국애족의 한평생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절세위인의 거룩한 헌신의 자욱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 한생을 초불처럼 불태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은 그 얼마나 큰것이였던가.

민족의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에 잃은 가슴터지는 절통함에 사람도 산천도 피눈물에 몸부림치고 하늘도 비분의 눈덩이를 뚝뚝 떨구며 소리없는 오열을 터치던 대국상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여섯번째의 12월이 왔다.

우리 겨레는 오늘도 조국통일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던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숭엄히 돌이켜보며 그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눈굴을 뜨겁게 적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헌신의 자욱을 수놓으시고 그 길에서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언제나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하시며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를 기울이시고 해내외의 온 겨레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은 전체 조선민족의 심장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모든 사색과 활동의 기준은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통일번영이였고 그이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은것은 조국의 통일이였다. 분렬의 비극속에 신음하는 겨레의 운명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삼천리강토우에 하루빨리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눈보라, 비바람을 많이도 맞으시고 험한 길도 수없이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창밖에 비가 내려도 남녘동포를 생각에 잠 못 이루시고 아름다운 명승지를 찾으시여서도 온 겨레가 함께 복을 누릴 그날을 그려보시던 우리 장군님,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나날속에는 한모금의 샘물로 끼니를 대신하시고 령도의 자욱을 이어가신 잊지 못할 세월도 있고 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일군들의 가슴속에 굳게 심어주신 양력설날 깊은 밤의 가슴뜨거운 사연도 있다.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뜻깊은 탄생일마저도 통일을 위해 지새우신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무엇이 끓고있기에 조국통일을 위해 그토록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신것인가.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고, 민족의 분렬을 더없는 아픔으로 어기면서 조국통일에 마음과 뜻을 둔 사람이라야 애국심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다, 일군들은 당사업을 해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경제사업을 해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대외사업을 해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조국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분렬의 비극에 신음하는 겨레의 운명이 얼마나 가슴아프시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그리도 절절히 교시하시였겠는가.

이 세상 가장 신성한 리념, 세월이 흘러도 그 진리성이 퇴색되지 않으며 누구의 마음속에서나 한결같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만민의 정의는 바로 애국애족이다. 애국애족이 가장 고상한 사상감정이라면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애국애족은 조국통일이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며 우리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조국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한다는 이것이 조국통일과 관련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신념이였다. 하기에 그이의 모든 사색과 실천은 조국통일에로 지향되였다. 심오하고 원대한 사색의 바탕에 놓여있은것도 민족이였고 빛나는 실천의 목표도 내 나라, 내 민족의 통일과 부강번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애국일념이 있어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이 마련될수 있었다.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대결의 최전방인 판문점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고 조국수호, 민족수호의 최전선길을 앞장에서 헤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는 조국통일위업이 줄기찬 전진을 이룩하게 한 원동력이였다.

그 나날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기울이신 헌신의 만단사연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우리 어기에 하나의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한다.

주체88(1999)년 10월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아직 나라의 통일도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자신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겠는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생각밖에 없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나라의 통일을 위해 끝없는 로고의 길을 이어오시고도 바치신 로고와 심혈이 적으신듯 오히려 더 큰 헌신의 길을 이어가실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엄한 영상을 뵈오며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에 목메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민족분렬의 장벽을 뒤흔들며 20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자주통일시대의 탄생을 선포한 력사적인 평양상봉은 우리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신 그때로부터 몇달후에 있은 민족사적사변이였다.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새 장을 펼치고 겨레에게 자주통일의 희망과 락관을 북돋아준 6.15통일시대의 탄생과 그 활력있는 전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확고한 통일의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마련된 력사의 기적임을 우리 겨레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우리 장군님은 바로 이런분이시다. 누구보다 조국과 겨레를 열렬히 사랑하시며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온넋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어버이, 그이께서 조국통일의 길에서 이룩하신 민족사적업적은 천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으리라.

한평생을 애국애족의 열정으로 불태우시고 거룩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정녕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애국주의는 오직 장군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김정일애국주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그렇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애국의 후더운 열과 정을 깡그리 쏟아부으시여 조국통일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시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겨레는 영원토록 길이 전해갈것이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의 전두에는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것을 승고한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통일위업실현의 새로운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고계신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국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울것이다.

본사기자 은정철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

현 괴뢰당국이 박근혜역도가 집권기간 벌려놓았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라는것을 다시 추진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동남아시아나라들에 대한 행각에 나선 남조선집권자는 측근들에게 이전 《정권》의 정책이였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지령을 주었다. 이것은 현 남조선당국이 박정희군사파쑈독재통치의 잔재인 《새마을운동》을 집권유지의 수단으로 꺼내들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새마을운동》으로 말하면 《유신》독재자 박정희역도가 락후한 농촌을 《근대화》한다고 떠들면서 벌려놓았던 사실상의 인민수탈놀음이였다. 당시 《유신》독재자는 남조선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할듯이 길을 닦아라, 지붕을 이어라 하며 헌일 달구어댔다. 하지만 남조선농민들에게 차례진것은 가난과 굶주림, 빚더미뿐이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해 《길마을운동》, 《허속기름까지 짜내는 운동》, 《생을 마르게 하는 운동》 등으로 절규하면서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해나섰겠는가. 이것은 《새마을운동》의 기만성과 반인민적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도는 집권후 제 애비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 몸값을 올릴 흉심밑에 뻔뻔스럽게도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역도가 애비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본따고있다, 《21세기형 박정희정부》라고 비난하면서 도리머리를 저었다.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은 《유신》독재자가 고안해낸 《새마을운동》을 악몽으로 떠올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한 운동》, 《수탈운동》이였다고 침을 뱉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보수적폐청산기운이 한창 고조되고있는 때에 그에 배치되게 《유신》독재자의 폐물이고 박근혜역도의 적폐인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놀음을 다시 추진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보수와의 타협이고 그에 대한 굴종이며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 아닐수 없다.

현 남조선집권세력도 박근혜역도가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놀음을 벌리는데 대해 《〈10월유신〉의 부활과 파거에로의 회귀》, 《시대착오적인 처사》로 반대해나섰었다.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던자들이 이제 와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운운하며 그것을 다시 추진할 기미를 보이는것은 저들에게 집권의 길을 열어준 초불항쟁자들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이다.

괴뢰집권세력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달라붙고있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박정희향수》에 젖어있는 보수층을 끌어당겨 저들의 통치기반조성에 써먹으려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집권세력은 적폐청산에 도전하는 보수야당패거리들의 반발로 하여 저들이 내놓은 각종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있다. 조급해진 이자들은 집권을 유지하고 통치위기를 가시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따위를 주어들고 보수세력에게 추파를 던지고있다.

다 망해빠진 보수세력의 환심을 사보려고 친미, 친일역적들의 진배가 묻은 《새마을운동》에 《세계화》라는 보자기를 또다시 씌워놓고 《국민통합》을 떠들어대는 괴뢰당국이야말로 가련하기 짝이 없다.

더욱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괴뢰당국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라는 간판을 붙이려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발전도상나라들을 유혹하여 국제적인 반공화국압박공조를 강화하려고 꾀하고있는 사실이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는 괴뢰들은 저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이자들이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오물단지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을 끌어당겨 우리에 대한 압박공조놀음에 써먹으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은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초불정권》으로 자처하는 남조선당국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같은 전형적인 보수적폐를 청산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되살리는 망동을 부리는것을 인민들은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보수패당의 전철을 밟다 못해 《유신》독재자의 망령까지 내세우며 보수층의 지지를 구걸하고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초불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리성호

로동기본권 쟁취하자, 로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남조선로동운동단체들 대규모항의투쟁 전개, 수만명의 로조원들 참가

보도들에 의하면 11월 28일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소속 건설로조가 서울의 괴뢰국회앞에서 대규모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괴뢰국회는 임금지급확인제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법개정안》의 통과를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가로막아왔다.

지난 23일에도 괴뢰국회 환경로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론의를 유야무야해버렸다. 그리고는 로동시간연장, 수당금폐지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론의하였다.

28일에는 《건설근로자법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하지 않고 그에 관한 회의를 끝마치고 말았다.

괴뢰국회의 반로동자적태도에 격분하여 민주로총은 《근로기준법》개악을 반대하는 긴급집회를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집권자가 내들었던 로동시간단축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것이 아니라 연장작업을 강요하며 로동재해만 날게 하는 《근로기준법》개악강행을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특혜조항으로 하여 로동자들이 과로에 의한 죽음을 당하고있으며 이 조항만 없애도 임자리가 현재의 몇배로 늘어날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근로기준법》개악책동때문에 전체 로동자들의 분노가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특혜조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 로동존중의 사회는 없다고 절규하였다.

민주로총의 집회가 끝난 다음 건설로조의 대규모투쟁이 진행되였다.

전지역에서 모여온 2만여명의 건설로조원들은 로동자들의 통성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여의도의 광고탑에서부터 괴뢰국회앞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행진을 마친 로조원들은 《로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즉각 개정!》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총파업결의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국회》가 《건설근로자법개정안》의 통과를 이리저리 회피해온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국회》와 《정부》에 속히 줬다고 하면서 그들은 《국회》가 로동자들의 생존권과 관련한 법안들을 휴지장으로 만들었다고 규탄하였다.

로동자들이 물러설만큼 물러섰고 양보할만큼 양보하였으며 이제는 전진할 때라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꾸고 법 또한 우리 힘으로 바꾸자.》고 하면서 이를 만드시 해낼수 있다고 서로 고무하였다.

더는 《국회》와 《정부》를 믿지 말고 로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그들은 토로하였다.

집회에서는 고공농성중에 있는 건설로동자가 전화로 보내는 발언이 있었다.

그는 지금 건설현장은 매일 2명씩 죽어가는 전쟁터라고 하면서 로동이 존중받는 세상, 건설로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장에서는 《건설근로자법 개정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등의 웨침이 터져나왔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마포대교를 차지하고 《건설근로자법개정안》통과를 가로막은 괴뢰국회를 단죄하며 항의통성을 벌렸다.

로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기 위해 파쑈경찰은 괴뢰국회앞도로를 봉쇄하고 폭압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이날 민주로총은 《한국로총》, 정의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로동시간단축은 로동자와 국민의 념원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청년단체 량심수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

발언자들은 초불《정부》의 첫 사면대상은 전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 리석기와 민주로총 위원장 한상균을 비롯하여 이전 《정권》시기 가장 가혹한 탄압을 받은 모든 량심수들로 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초불투쟁으로 새 《정권》이 세워진지 반년이 지났지만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량심수들이 여전히 사면되지 못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량심수석방이 적폐청산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당국이 새 사회진실을 위한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문민》의 망령을 부르는 정치협잡배들

최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문민》독재자 김영삼역도를 찬미하는 놀음에 극성스럽게 매달리고있다.

《자유한국당》의 보수패거리들은 얼마전 역도가 퇴진지 2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부산에서 그 무슨 《기념모임》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여기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역도는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하였다.》느니, 《정직한 정치인이였다.》느니 하면서 김영삼역도를 역스럽게 찬양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그리고는 이 극악한 독재광을 《민주화의 아버지》로 추어올리면서 역도의 흉물스러운 사진을 리승만, 박정희역도의 사진들과 함께 《자유한국당》당사들에 걸어놓게 하였다. 한편 《자유한국당》패들은 다음해에 진행되는 지방자치제선거때 김영삼역도가 1996년의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써먹은 《전략공천》방식을 도입할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죽어 썩어진 김영삼역도를 낯뜨겁게 내세우며 추어올리는 해괴망측한 추태를 부리고있는것은 지리멸렬된 보수진영을 수습하고 규합할만 한 인물이 없는 이자들의 가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대중적으로 전개되고있는 적폐청산투쟁에 의해 괴뢰보수패거리들은 더욱 헤어날길 없는 궁지에 몰리고있다.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은 물론 리명박역도의 범죄행위들까지 련이어 밝혀지고 괴뢰검찰의 수사가 《자유한국당》으로 집중되면서 보수세력의 거물이라고 하는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있다.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지시와 배후조종밑에 불법적인 여론조작범죄와 부정부패행위 등 각종 악행을 일삼은 원세훈, 남재준, 리병기 등 전 괴뢰정보원 원장들이 감옥에 갇히고 친박계의 원들인 원유철, 최경환에 이어 비박계의 김무성, 홍준표에게로 검찰수사망이 좁혀지고있다.

급해맞은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적폐청산에 어떻게 하나 제동을 걸고 보수부활계책을 실현하기 위해 《보수재건》의 간판밑에 흩어진 보수세력을 긁어모으기 위한 보수재규합놀음을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문제는 괴뢰보수패거리들에게 보수세력의 재규합을 실현할만 한 온전한 인물이 없는것이다.

이런데로부터 홍준표패당은 김영삼역도를 적극 내세워 저들의 불순한 흉계를 실현하려고 꾀하고있다. 이자들의 망동에는 《자유한국당》이 김영삼역도의 《민자당》, 《신한국당》의 바통을 물려받은 《정통보수정당》이라는 냄새를 피우기 위한 술책이 깔려있다. 망해가는 처지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정통보수정당》, 《민주주의 수호정당》으로 둔갑시켜 사분오렬된 보수세력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지세력을 확대하려는 흉준표패당의 비렬한 흉계의 발로가 김영삼역도를 내세우는 놀음인것이다.

흉준표역도의 권력야심은 이미 잘 알려진것이다. 초보적인 인격도 없고 정치도 모르는 무지무능아, 인간오작품으로 락인된 추물인 흉준표역도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제는 무덤속의 더러운 송장까지 우려먹으며 지랄발광하고있다. 이것은 김영삼역도를 보수의 《정신적구심점》으로, 보수의 《상징》으로 한껏 피여올리면서 자기가 역도의 《정치적대리인》, 《보수의 대표자》나 되는듯이 행세하여 권력야욕을 실현하려는 알락한 권모술수이다.

지금 흉준표패거리들이 이미 오래전에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김영삼역도의 《문민》간판을 찾아내여 들고다니지만 그것은 쓸데없는것이다.

괴뢰보수패당이 그처럼 신주모시듯 하며 내세우는 김영삼역도는 온갖 음흉하고 교활한 방법을 다하여 군부파쑈독재 《정권》의 연장인 《문민정권》을 조작하고 인민들이 갈망하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함으로써 《땅크우에 올라선 문민파시스트》, 《문민》독재광으로 악명을 떨친 민족반역자이다. 파쑈폭압쁑을 내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고 지어 성당에까지 경찰무력을 들이밀어 로동자들을 피투성이로 만든 파쑈폭군이 바로 김영삼역도이다.

역도는 집권기간 《돈먹기를 절하게 놀아대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역겨운 망동에 남조선인민들은 침을 뱉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김영삼역도를 찬미하는 흉준표패거리들의 망동을 보수세력의 재규합을 위해 《문민》독재자의 망령을 우상으로 내걸지 않으면 안되게 된 궁여지책으로 야유하면서 무덤속의 더러운 송장까지 정치적야욕실현에 써먹는 반역무리를 하루빨리 박멸해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김영삼역도의 망령까지 불러내여 위기를 모면하고 집권야욕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지만 민심은 이미 보수역적당에 사형선고를 내린지 오래다. 괴뢰보수패당이 아무리 교활한 술수를 써가며 발악해도 분노한 민심의 적폐청산파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엄수련

천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자, 모략군들

남조선에서 파쑈폭압과 모략의 소굴로 악명을 떨친 괴뢰정보원의 우두머리들이 지금 력사의 심판대에 줄줄이 끌려나와 죄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다.

지난 8월 정보원선거개입사건으로 기소된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 괴뢰정보원 원장을 해먹은 원세훈역도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에 이어 얼마전 괴뢰검찰은 박근혜역도에게 수백만US$의 정보원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섬겨바친 전 정보원 원장 남재준과 리병기를 구속하였다. 역시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정보원 원장노릇을 한 리병호의 신세도 벌만 다를바 없다. 지금 괴뢰검찰은 특수활동비를 바친것이 박근혜의 지시에 따른것이였다고 진술하고 책임을 역도년에게 넘겨씌워 겨우 구속을 면한 리병호에 대해 구속령장을 재청구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 하고있다.

죄는 지은데로 간다고 이자들이 죄고랑을 차고 류치장신세를 지게 된것은 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민족을 반역하며 온갖 못된것을 다 저지른 응당 못할 범죄적악행에 따른 응당한 징벌이다.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역도에 대한 괴뢰정보원의 특수활동비제공사건은 정보원패거리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행위들중 한가지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만 놓고보아도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이 감행한 극악한 반공화국모략책동들과 더럽한 부정부패행위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괴뢰정보원이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철저한 하수인집단으로서 보수《정권》유지를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해왔는가 하는것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지난 2012년의 《대통령》선거당시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은 리명박역도의 지령에 따라 박근혜역도를 당선시키기 위해 인터네트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발동하며 불법적인 여론조작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남조선의 정보원과 싸이버사령부 등이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2 400만건이상의 글을 인터네트를 통해 류포시켰다.》, 《결국 정보원의 비밀요원들이 독재자의 딸을 당선시켰다.》, 《박근혜가 야당후보와의 경쟁에서 간신히 이긴것은 정보원의 비밀공작때문이였다.》라고 대대적으로 폭로하였다.

괴뢰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사건의 진상이 폭로되여 내외의 규탄여론이 날로 높아가자 극도로 당황망조한 박근혜역도는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해 정보원 원장이였던 남재준역도를 내몰아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사건이라는 또 하나의 특대형정치모략사건을 조작해냈다. 당시 박근혜패당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이 터지면서 《정권》의 존립기반이 밑뿌리채 흔들리게 되자 로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북남수뇌회담과정에 《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고아대면서 수뇌상봉담화록을 전격공개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북남관계력사는 물론 세계외교사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이 망동으로 하여 남조선은 대수라장이 되고 각계층과 언론들은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쿠데타》, 《내란》, 《초법적행위》 등으로 강력히 성토하였다.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이 저지른 극악한 범죄행위가운데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도 있다. 이 사건은 괴뢰정보원깡패들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리게 하고 동족대결기운을 고취하여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조작해낸 전형적인 반공화국모략사건이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이 얼마나 유치하고 비렬한 방법으로 조작되였는가 하는것은 론박할수 없는 자료들에 의해 날날이 폭로되였다. 급해맞은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은 사건조작과 관련하여 저들의 죄행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보는바와 같이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이 한것이란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같은 극악한 독재광들을 등에 업고 권력의 시녀가 되여 북남대결과 파쑈모략, 부정부패행위에 미쳐날뛴것뿐이다. 이런 더러운 정치모략군, 죄악의 도적패당을 어찌 용납할수 있겠는가. 원세훈, 남재준, 리병기를 비롯한 괴뢰정보원의 죄많은 우두머리들이 죄고랑을 차고 감옥에 처박힌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에서 초불민심의 요구대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려면 특수활동비제공사건과 같은 괴뢰정보원의 불법, 부정행위뿐아니라 이 파쑈모략소굴의 깡패들이 저지른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천인공노할 테로음모와 《동까모》사건을 비롯한 특대형범죄들, 우리 녀성공민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집단합치만행 등의 진상도 낱낱이 까밝히고 반통일적폐들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괴뢰정보원의 범죄자들은 물론 이 자들을 비호두둔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장정철

경상북도 포항에서 지진피해 확대

26일까지 종합된 전체 피해액은 지난해에 있은 경주에서의 지진피해때보다 8배나 된다고 한다.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주민들의 수가 1 200여명에 이르고 공공시설피해는 404건, 개인시설피해는 2만 9 700여건에 달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지난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터치는 칭송의 목소리 세월과 더불어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매혹과 흠모를 낳는 열화같은 인간애

《인간은 오랜 기간의 진화과정을 통하여 생활상적응력에서는 그 어떤 생명체에 비길데 없는 완성된 존재로 되였지만 그 어느 위인도 인간적풍모에서는 완전무결한 존재로 되지 못하였다.

인간이 갖출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신분은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뿐이시다.》

이것은 언제인가 유럽의 한 정치가가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미에 매혹되여 스스럼없이 터친 심장의 말이다.

정녕 그러하였다.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시고 인간사랑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주신 희세의 인간원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신것으로 하여 세계에는 인간존중, 인간중시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무릇 사람들은 인간의 참된 사상감정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하지만 꾸며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인간중의 참인간만이 지닐수 있다.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가장 고결하고 정의로운 인간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그 폭과 깊이, 열도에 있어서 어디에도 비길데 없으며 인종과 민족, 국경과 정견,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한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불사약으로 받아안은 행운아들속에는 우리 나라 주재 에짚트아랍공화국대사관 성원이였던 와일 바라카트도 있다.

주체83(1994)년 11월 중순 평양 친선병원으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중태에 빠진 한 외국인이 실려왔다.

당시 인체내 10여개 중요장기들에 심한 손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채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있던 와일 바라카트를 두고 오랜 기간 의료부문에서 사업해온 의사들도 수술칼을 들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미나먼 에짚트에서 달려온 그의 어머니조차도 아들의 정상을 보고는 모든것을 단념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해당 부문 일군들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깊숙이 묻어두시고 사경에 처한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따라 10여명의 유능한 의사들로 강력한 의료진이 무어지고 최신의료설비들과 진귀한 약품들이 아낌없이 들려졌다. 의료일군들은 환자의 소생을 위해 밤낮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를 벌렸다. 치료기간 진행된 수많은 실험검사, 환자에게 수혈한 많은 피, 영양식사를 보장하느라고 애쓴 그 모든 정성이 마침내 기적을 낳았다. 한달나마 생사기로를 헤매던 그가 의식을 회복하게 되였고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완쾌된 몸으로 병원문을 나서게 되였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이겨낸다는것을 옛 신화로가 아니라 다름아닌 조선에서 현실로 직접 체험하게 된 와일의 어머니와 대사관성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와일의 어머니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께서는 나의 아들을 위하여 끝없는 육친적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이 크나큰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일각하이시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이십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온 인류의 위로를 다 받아도 가시지 못할 상실의 아픔을 안고계시면서도 한 평범한 외국인을 위해 이토록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도 같은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안은 행운아이다.

우리 수령님의 접견을 20여차례나 받는 남다른 특전을 지닌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는 자애로운 스승, 친근한 어버이를 잃은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상실의 아픔이 크셨지만 스승을 잃고 슬퍼하는 그의 심정을 먼저 헤아리시고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를 접견하여주시였던것이다.

못다 준 친어버이의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그이께서는 그와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면서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처럼 조선에 자주 오라고 잘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두고두고 잊지 못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이 소식이 전파를 타고 전해지자 격정의 파도가 온 우주에 일었다.

그가 누구든 관직을 초월하여 따뜻이 대해주시는분, 첫 순간에 매혹되고 한마디 말씀에도 살뜰한 정을 담아 상대방의 마음을 후덥게 해주시는분,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키시는 고결한 풍모를 지니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기간에 많은 외국대표들이 생일을 맞게 된다는것을 아시고 그들모두에게 조선료리는 물론 각자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까지 놓여있는 생일상을 안겨주도록 하신 이야기,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평양산천에서 태여났고 그이께서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신 한 외국소녀가 자기 동무의 병을 고쳐달라고 무람없이 올린 소청도 들어주시여 그를 평양에 데려와 심한 탈모증을 고치도록 하시여 그에게 잃었던 웃음과 노래를 되찾아주신 이야기, 우리 나라 령해깊이에 불법침입하였다가 단속되였던 적대국의 어민들이 처벌은커녕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고 자기 나라에서는 몇년동안 고치지 못하고있던 속탈도 치료하며 이발까지 해넣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돌아갈 때에는 새것처럼 미끈하게 수리된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싣고가도록 하신 전설같은 이야기…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간애가 낳은 감동깊은 일화들을 다 전하기에는 우리의 지면이 너무도 모자란다.

이렇듯 인간에 대한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닌분이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사상리론을 하나 내놓아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된 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정치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펼치신것 아니랴.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사랑의 최고화신, 하늘같은 그 인덕으로 만민의 심장을 틀어잡으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뜨겁게 불타는 12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인간사랑의 위대한 귀감을 마련하신 위인의 세계를 경건한 마음으로 더듬어보고있다. 그럴수록 위인은 사랑으로 더 위대하고 거룩하다는 말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다.

달리는 부를수 없는 태양의 사랑으로 인덕의 대화원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걸출한 위인상에 매혹되여 세계 진보적인류가 터치는 칭송과 격찬의 목소리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온 행성에 더욱 장엄하게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박 송 영

위인칭송의 대하

◇ 절세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온 행성에 굽이치고있다.

로씨야, 스위스, 체스꼬, 인디아, 이란, 나이제리아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회고위원회들이 련이어 결성되고있다.

회고위원회 결성식장마다에서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은 《조선혁명과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오늘도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과 위협을 반대하는 세계반제력량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사회주의조선의 강화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라고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정녕 위인에 대한 그리움, 위인칭송의 12월이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지나온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사회적진보와 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하여 명성을 떨친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과 같이 특출한 자질과 품격을 지니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천출위인은 찾아볼수 없다.

따사로운 빛과 열로 만물을 소생시키는 태양과도 같이 우리 장군님께서는 뛰여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한없이 넓은 포옹력과 고매한 풍모로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수호하고 전진시키시였으며 만민을 매혹시키시였다.

하기에 외국의 한 인사는 《그이는 오직 태양에 비겨서만 그 위대성의 전모를 다 알수 있는 천출위인이시다.》라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쌓으신 업적과 숭고한 력망으로 하여 인류의 심장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 또 한분의 위인을 모시여 태양의 력사는 변함없이 흐르고있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서 세계자주화위업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온 세상을 밝히는 조선의 주체의 태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진보적인류가 터치는 열화같은 목소리이다.

그렇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자주위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것이며 태양의 력사는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를것이다.

만민이 격찬하는 사상리론의 대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불세출의 태양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들중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주의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신것이다.

오늘도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탐독하고있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와 인민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체계화, 정식화하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면서 발표하신것이다.

이 로작이 발표되자 세계에서는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났다.

《사상리론의 거장 김정일령도자 완성된 혁명학설 제시》, 《인류의 사상발전에서 최고의 최고》, 《삶과 투쟁의 무기들 안겨준 백과전서》…

우리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의 전인력과 감화력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그 전인력과 감화력에 끌려 부르죠아철학가들까지도 열렬한 주체사상신봉자로 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였던 교수, 박사 베에르 부도는 부르죠아철학가이며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였다. 그에게 있어서 부르죠아철학에 대한 신념은 그 누구도 허물수 없는것으로 인정되여있었다.

그러던 그가 주체사상에 공감하게 되였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탐독하는데 모든 시간을 깡그리 바치였다.

주체사상의 진수를 터득하는 과정에 그는 철학의 진정한 대가는 조선의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이시며 주체철학이 있음으로 하여 인류가 자기의 참다운 철학을 가지게 되였다고 확신하게 되였다.

탁월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이뿐이 아니다.

1980년대말-1990년대초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것은 인류를 참혹한 정치지진속에 빠뜨렸다. 이 비극적사태는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가 영영 매장되는가 아니면 재생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산생시켰다.

력사의 이 문제에 명철한 대답을 주신분은 다름아닌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류자주위업에 대한 책임감과 천리혜안의 예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등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필, 발표하시였다. 로작들은 전세계에로 급속히 파급되였다.

로씨야의 한 정당지도자는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누가 감히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제건시킬데 대한 글 한포박 써낸적이 있었는가. 오직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수많은 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실천에 구현해나가고계신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의 구원자, 수호자로서의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업적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는 철학적정의로 혼탁된 리념의 소용돌이에 빠져 방황하던 인류에게 정확한 투쟁의 길,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신 어버이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인민대중의 리상을 실현하는길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여기신 그이의 력사적선언이였으며 인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고 진보적인민의 미래를 책임지신 천출위인만이 밝히실수 있는 자주시대의 불멸의 대강이다.

한생을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은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실것이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불멸의 대강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삶과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로 영원할것이다.

본사기자

세인을 경탄시킨 비범한 예지

오늘도 진보적인류는 비범한 예지와 사리정연한 론리, 뛰여난 분석판단력과 해박한 식견으로 이 행성우에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일화들을 남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위인상에 대하여 추억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세인의 경탄을 자아낸 많고많은 일화들중 일부를 여기에 적는다.

《참으로 놀라운 천재이십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를 방문하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때 그이께서는 흐루니체브명칭 우주과학생산렌마를 참관하시였다.

센터의 연구설비들을 일일이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내성원에게 이것이 우주궤도정류소 《미르》호인가고 물으시였다. 한눈에 헤아려보고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물으심에 그는 옳다고 말씀드렸다.

잠시 《미르》호의 외형을 살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번 올라가보자고 하시며 몸소 격실로 오르시였다. 《미르》호의 내부를 일별하고나신 그이께서는 안내성원이 설명해드리기도 전에 알만 하다고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수 격실의 여기저기를 가리키시며 내부구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였다.

인류과학기술의 정수이며 최첨단기술의 종합체인 우주궤도정류소의 내부구조는 물론 동작원리까지도 환히 꿰들고 설명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안내성원과 로씨야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하기에 로씨야의 한 일군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신 특출한분이시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알고있었지만 우주과학분야에까지 이렇게 정통하고계실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천재이십니다.》

명석하게 풀어주신 수수께끼

어느해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전 미국무장관 알브라이트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연회석상에서 수수께끼를 낸 적이 있었다. 수수께끼인즉은 열손가락을 가지고 단 한번에 16이 나오게 하는것이였다.

열손가락으로 어떻게 16이 나오게 할것인가?

참가자들모두의 시선이 우리 장군님께 집중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꿔 어떻게 생각할것이 있는가고 하시며 참으로 명석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손을 모으시고 엄지손가락 둘로는 《X》표시를 하시고 나머지 왕복네손가락을 쭉 펴보이시였다. 곱하기방식을 표시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에 감복한 알브라이트는 선참으로 박수를 치며 지도모르게 그이에 대한 경모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본사기자 림 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수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세계사적인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오늘도 세계언론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에 대해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네팔신문 《아르판》은 《김정일과 세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일각하의 탄생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운명과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하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또한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좌절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완전종말》을 떠들던 그때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파키스탄신문 《쿠에타 데일리 인디펜던트》, 꽁고신문 《러 빠뜨리오뜨》,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도 《백두산과 김정일》 등 제목의 글들에서 항일의 나날 백두산에서 조선을 빛내이신 광명성, 시대의 항도성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날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인터내셔널 메디아》는 《김정일과 세계, 세계자주화위업의 기수》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세계자주화위업을 전두에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이 전개한 반제투쟁의 산모범으로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계속하여 신문은 미국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등 끊임없는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켰지만 그때마다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앞에 굴복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전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신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중에서 가장 특출한것은 선군의 보검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오직 자위의 총대, 무적의 군력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수 있다는 철리로부터 세계정치사에 류례없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시였다. 그이의 선군령도는 조선의 군력을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웠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의 악독강식의 국제질서에 파렴구를 냈다.

김정일, 참으로 그이는 조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여 인류에게 평화의 푸른 하늘을 펼쳐주신 대성인이시다.》

인류를 경탄시키며 온 행성에 굽이치는 위인칭송의 열기는 불세출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다함없는 경모심의 분출이다.

박 예 경

다함없는 경모심의 분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우리 나라를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미국의 강권행위와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처사를 존엄높은 주권국가에 대한 엄중한 도발과 란폭한 침해로,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우롱으로 락인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의 《테로지원국》 지정놀음은 저들에게 굴종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한 날강도적수단들중의 하나이며 저들의 무능력을 가리우기 위한 간판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조선의 핵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이며 미국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한 조선의 억제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이 이번에 공화국을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함으로써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조선의 사상과 제도를 압살하려 한다는것을 세계앞에 숨김없이 드러내보이였다고 하면서 조선이 선택한 병진의 길이 천만번 옳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디아의 신문들인 《오우선 뉴스 포인트》, 《타임스 오브 인디아》, 《힌두》, 지 뉴스TV방송, NDTV방송,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 투데이》, 중국의 신화통신, 중앙TV방송, 중국보도망, 환구망, 인민망, 일본의 《도꾜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아사히신붕》, NHK방송,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터네트신문 렌따, 루, 인터네트잡지 《뗌쉬》, 인터네트홈페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짚트신문 《알 미쓰리 알야움》, 베네수엘라의 텔레쑤르TV방송, 인터네트신문 《MSN》, 브라질의 신문 《아구아 베르데》, 인터네트홈페지 《마르사 베르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브라질선군정치연구센터,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북조선 미국의 〈테로지원국〉제지정을 비난》, 《북조선 테로딱지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규탄》 등의 제목들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보도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이란에서

이란정부가 앞으로 10년안에 남새온실농장을 전국적범위에로 확대할것을 계획하고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1만 2 150여ha의 면적에서 온실남새가 재배되고있으며 2025년에 그 면적이 4만 8 000ha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계획이 실현되면 해마다 2 100만t의 남새를 온실에서 생산할수 있다고 한다.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취해지고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부대통령이 11월 24일 국제관광전시회 개막식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관광업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나라의 경제가 지난 시기 오래동안 원유에 의존하여왔다고 하면서 이제는 관광업이 경제발전에서 기본추동력으로 되여야 할 시기라고 말하였다.

그는 전시회를 통해 자기 나라가 관광업발전을 위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디아에서

인디아에서 뗑구얼왁쩐개발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최근에 개발된 왁쩐이 림상실험단계를 거쳐 허가를 받은 다음 2019년말경에 환자치료에 도입된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11월 19일현재까지 14만명이상의 뎅구열환자와 2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탄자니아에서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 살람교외에 병원이 새로 건설되여 11월 25일에 문을 열었다.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개원식이 진행되였다.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져있는 9층짜리 병원에서는 한번에 500여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수 있다. 병원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이 판잡주에 대규모관개체계를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에 따라 214km의 크고작은 운하가 건설되게 된다.

관개공사가 완공되면 쉬헬름강으로부터 불무족으로 소출이 적은 6만 8 000여ha의 농경지에 물을 충분히 댈수 있다고 한다.

곡창지대로 알려진 이 주는 나라의 농산물생산의 80%를 차지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국제테로왕초, 세계최악의 테로지원국

정치활동가들을 목표로 한 극악한 테로행위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나라들 즉 반제자주적정향이 높고 진보적으로 나아가는 나라들을 압살하려는 목적밑에 그 나라들의 국가 및 정부수반, 지명한 정치활동가들과 고위인물들에 대한 비렬한 암살테로행위들을 끊임없이 감행한 테로왕초이다.

외국의 고위인물들에 대한 미국의 암살테로는 제2차 세계대전후에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되였으며 그 수단과 방법은 비렬하면서도 극악한것이였다.

미국은 1950년대에 인도네시아대통령 수카르노에 대한 암살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저들의 첩자들 궁전호위대에 박아넣고 대통령관저정면에 의례용으로 세워둔 105mm포를 장악하려 하였다. 대통령이 연설하려 나올 때 축포를 쏘는 기회를 리용하여 그를 테로하려 하였지만 실패하고말았다. 그후에도 미중앙정보국은 여러가지 수단들을 동원하여 수카르노에 대한 암살테로를 시도하였다.

꾸바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를 암살하려고 한 미국의 책동은 그야말로 악랄하고 집요한것이였다.

1960년대초에 피델 까스뜨로를 독살하기 위해 살인테로전문가들을 꾸바에 침투시킨 사건을 비롯하여 미국의 극악한 암살기도는 630여차례나 된다고 한다.

미국은 볼리비아에서 꾸바의 전설한 국제주의전사 체 게바라를 살해하기 위해 특수부대인 《푸른 베레모》까지 동원하였다.

백악관 특별보좌관, 미중앙정보국 국장을 비롯한 거물급인물들이 공동으로 꾸민 살해작전에 기초하여 특수부대의 살인악당들은 오랜 기간의 추적끝에 1967년 10월 그를 악착하게 살해하였다.

1961년에 감행한 민주콩고의 초대수상 루뭄바에 대한 살해사건은 미국이 몸을 들여 준비한 전형적인 암살테로사건이다.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는 민주콩고를 장악하려고 기회를 노리던 미국은 이 나라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정의와 진보의 길로 나아가자 루뭄바정부를 교살하기 위한 흉악한 음모를 꾸미였다.

아이젠하워로부터 루뭄바제거명령을 받은 미중앙정보국 국장 알렌 덜레스는 민주콩고주재 중앙정보국지부 요원에게 루뭄바가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 나라가 공산주의의 길로 나가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유세계》의 전반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때문에 그를 없애버리는 일이 미국의 긴급하고 주요한 목표로 된다고 하면서 그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루뭄바를 없애야 한다는 백악관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의 비렬한 테로음모가들은 루뭄바정부를 전복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이것도 성차지 않아 루뭄바를 저들 주구들의 손에 넘겨 야수적으로 살해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1975년에 있은 마다가스까르의 지도자 라찌만드라바에 대한 암살사건, 1980년대중반기에 모잠비끄대통령 마셀이 탄 비행기를 폭파시킨 테로사건 그리고 가나의 느크루마대통령에 대한 여러차례의 암살미수사건들은 모두 반제자주적이고 진보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여 미국이 감행한 악랄한 암살테로행위들이다.

이것은 공개된 미국의 테로행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흑막속에 묻혀있는 미국의 비렬하고 악랄한 테로행위들은 허다하다.

외국의 고위인물들에 대한 암살테로는 대부분 미중앙정보국이 맡아 수행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미국대통령의 직접적승인밑에 감행되고있다.

미국부대통령이였던 록펠러는 한 방송기자와의 담화에서 《중앙정보국의 주요활동중에서 백악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것은 없다.》고 실토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고위인물들에 대한 미국의 테로는 오늘도 전세계적범위에서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으며 더우기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있다.

미국은 지금도 《참수작전》에 대해 떠들면서 그 실행을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미국이 감행한 정치활동가들에 대한 암살사건들은 미국이야말로 국제테로의 왕초라는것을 똑똑히 론증해주고있다.

정 원 준

ㄱ-71190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